

『깜빡깜빡 챔피언』 독후 활동지



하나다 하토코 글 | 하지리 도시카도 그림 | 고향옥 옮김
봄소풍 | 82쪽 | 초등1~2학년 | 봄소풍 보물찾기 2

“

학교도 준비물도 숙제도 아직은 모든 게 서툰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가 꼭 읽어야 할 동화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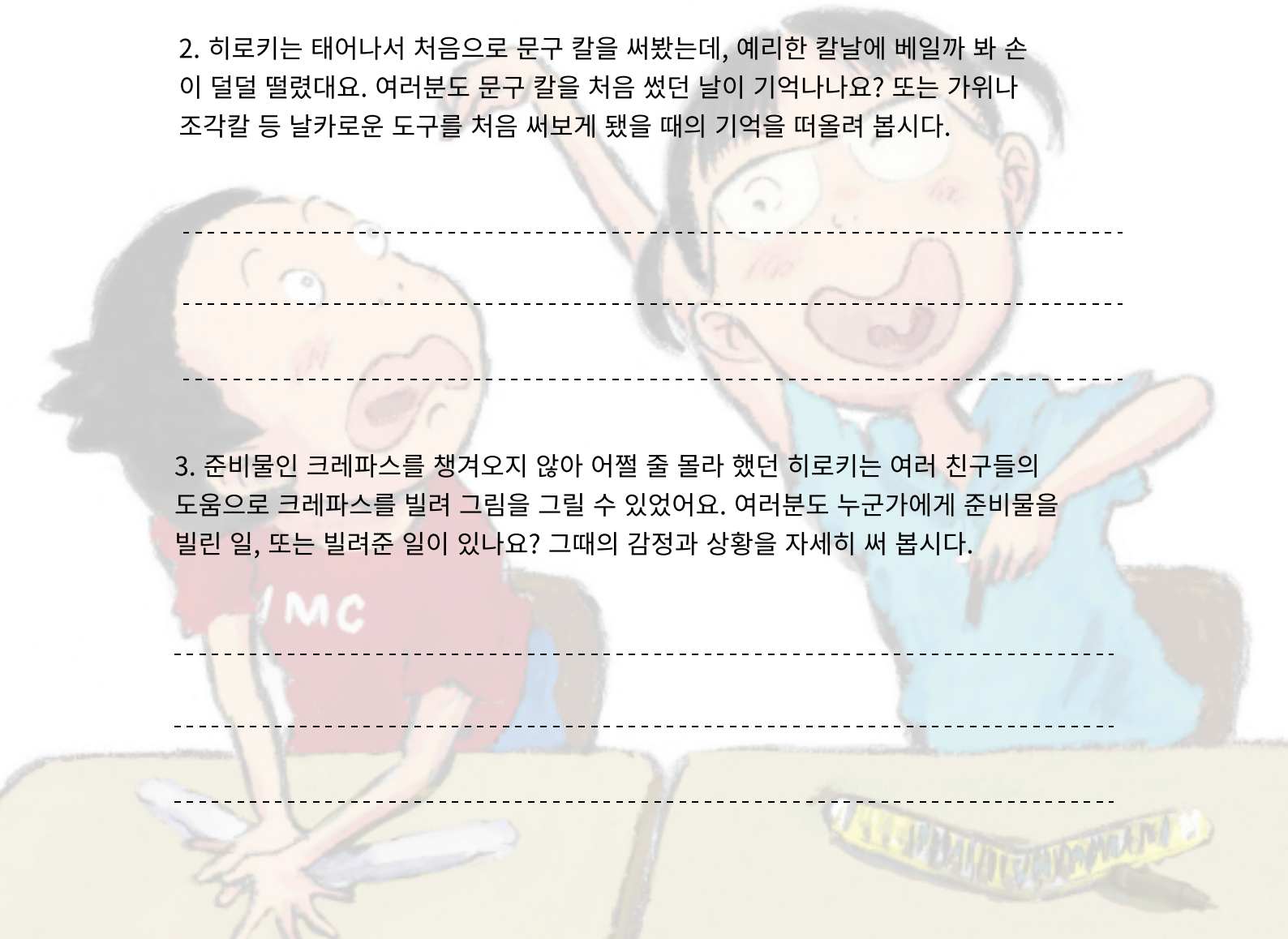
활동 학교에서

『깜빡깜빡 챔피언』은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일상들을 담고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어, 나도 이런 적 있는데!'하고 느낀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학교생활을 떠올리며 아래 질문에 답해 봅시다.

1. 히로키는 같은 반 짝꿍인 루미와 좋은 친구예요. 때로는 아웅다웅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돕기도 하지요.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짝꿍은 누구였나요?
어떤 친구였는지 소개해 주세요.

2. 히로키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문구 칼을 써봤는데, 예리한 칼날에 베일까 봐 손
이 덜덜 떨렸대요. 여러분도 문구 칼을 처음 썼던 날이 기억나나요? 또는 가위나
조각칼 등 날카로운 도구를 처음 써보게 됐을 때의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3. 준비물인 크레파스를 챙겨오지 않아 어쩔 줄 몰라 했던 히로키는 여러 친구들의
도움으로 크레파스를 빌려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준비물을
빌린 일, 또는 빌려준 일이 있나요? 그때의 감정과 상황을 자세히 써 봅시다.



활동2 감정 표현하기

히로키는 깜빡깜빡하는 습관 때문에 자주 난감한 상황에 처합니다.
 깜짝 놀라기도, 당황하기도 하지요. 그때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생생하고 재미나게 표현해요. 아래에 히로키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방식을 읽고,
 여러분도 자신의 감정을 풍부한 표현을 통해 글로 써 봅시다.
 다양한 의태어와 의성어를 활용하면 더욱 좋아요.

	책 속 표현	표현 방식
1	그 순간, 내 심장에 어마어마한 벼락 이 과과광 하고 떨어졌다	다소 과장된 비유를 통해 표현해 봅시다.
2	땀이 불타는 듯이 화끈화끈 뜨거워 지고, 이마에서 땀이 퐁퐁 났다	감정으로 인해 일어나는 내 몸의 신체 변화를 묘사하여 표현해 봅시다.
3	깜짝 놀라 자리에 제대로 앉으려다 하마터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다	당시 내가 겪었던 상황을 설명하여 표현해 봅시다.

- 1번 표현 방식으로 표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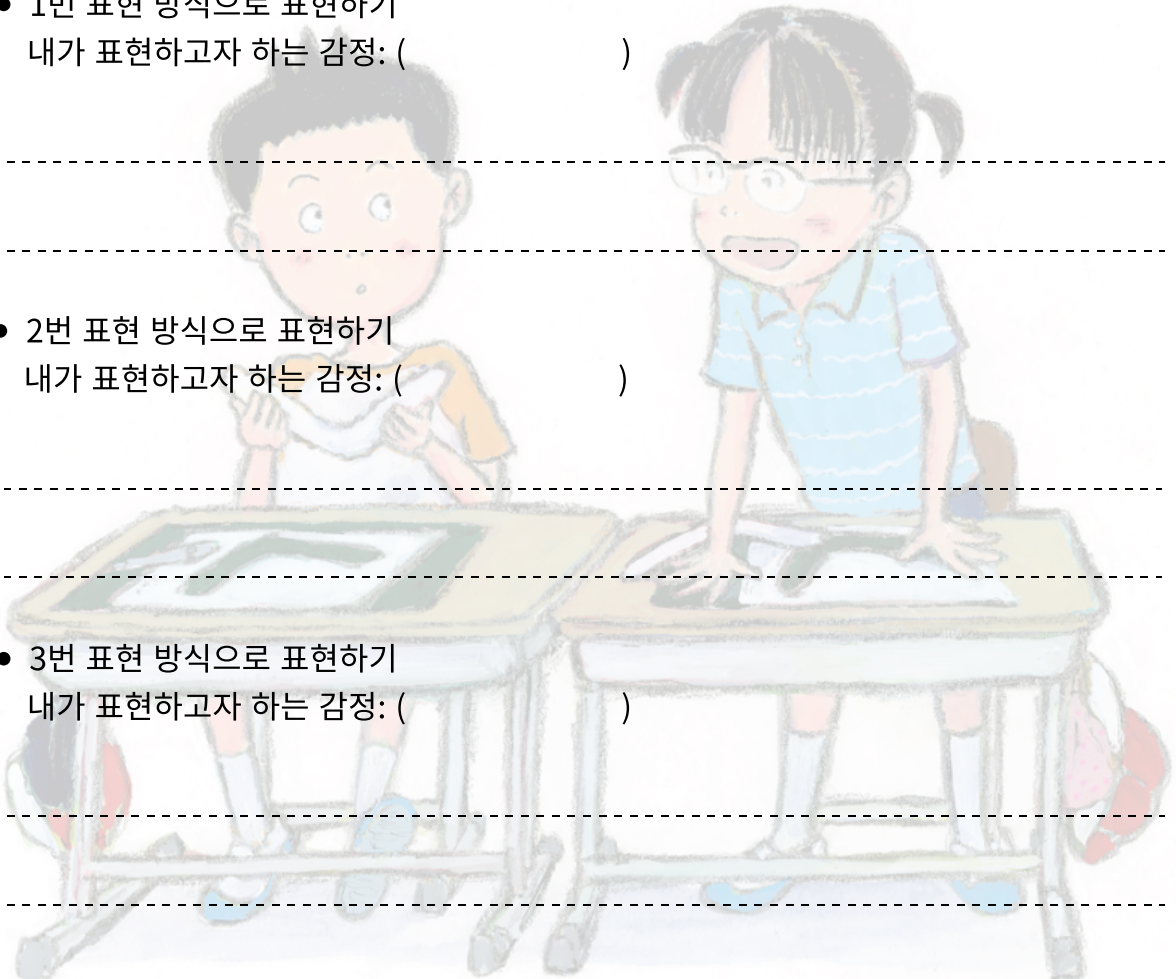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 ()

- 2번 표현 방식으로 표현하기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 ()

- 3번 표현 방식으로 표현하기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 ()



활동3

내 친구들은요

히로키는 루미가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동물 이름을 줄줄 말하자 깜짝 놀랐어요.
다케유키가 지도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위치를 단번에 맞췄을 때도 깜짝 놀랐고요.
매일 만나는 친구들이지만,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잘 몰랐거든요.

여러분은 친구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번에는 '친구가 좋아하는 것'으로 친구를 소개해 봅시다.

잘 모르겠다면 친구에게 직접 물어봅시다.

(예시) 내 친구 다케유키는 세계 지도를 좋아해요. 그래서 지도 속에서
어떤 나라든 단번에 찾아내요. 세계를 누비는 기차도 좋아해서,
다케유키의 집에는 기차 모형이 가득해요. 다케유키는 탐험가가 되고 싶대요.



활동4 세 가지 작전

여러분도 책 속의 친구들처럼 '깜빡깜빡'하는 버릇이 있지 않나요?
깜빡깜빡 챔피언 자리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질문에 답하며 생각해 봅시다.

1. 다음은 선생님이 준비물을 깜빡하고 집에 두고 온 히로키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히로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히로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깨달았나요?

“실은 지난 소풍 때 선생님이 늦잠을 좀 잤거든. 그런데 말이야,
선생님 배낭에서 삼각 김밥이 도망을 쳤지 뭐냐.
선생님은 배고픈 건 못 참아. 이거 참 야단났다 싶어서
손살같이 집으로 뛰어가서 다시 도시락을 가져왔지.
급하게 서두르거나 정신 놓고 멍하니 있으면 도망가 버린다.”

2. 루미와 히로키는 깜빡깜빡 챔피언을 벗어나기 위해 각자 '작전'을 세웠습니다.
어떤 작전이었나요? 아래에 각각의 작전 이름을 쓰고 이에 대해 설명해 봅시다.

첫 번째, 루미의 () 작전 :

두 번째, 히로키의 () 작전 :

활동5 나도 챔피언

자꾸만 깜빡해서 엄마에게 혼나는 히로키에게 아빠는 이렇게 말해주지요.
“아, 그래! 생각해 보니까, 아빠도 어릴 때 준비물 챙기는 걸 깜빡깜빡했다.
반에서 ‘깜빡깜빡 챔피언’이었어.”

이런 챔피언도 있다니요? 그럼 실수투성이인 나도 챔피언이 될 수 있을까요?

1. 실수를 부끄럽게만 생각하거나 자꾸 감추려 한다면 고치기 어려워요.
실수를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실수를 스스로 깨닫고 인정해야 해요.
여러분이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여러 개일 수도 있겠지요. 아래에 모두 써 봅시다.


2. 여러분의 실수를 모두 찾아냈다면, 이제는 '챔피언'이 될 차례예요.
실수를 고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해요.
위에 적은 것 중 내가 가장 고치고 싶은 실수를 아래 '챔피언 트로피'에 적어보고,
친구들과 서로의 트로피를 뽐내 봅시다.



실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만, 실수를 자꾸 반복하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챔피언을 탈출할 수 있는 작전을 세워 봅시다.

3. 내가 자꾸 실수를 반복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나의 평소 생활 습관 속에서 그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작전을 세워 봅시다.

4. 챔피언 자리를 내려놓는다니 조금 아쉽지만, 변화한 여러분의 은 더욱 멋진 모습일 거예요. 그때의 여러분은 어떤 완벽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변화한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며, 가상의 일기를 써 봅시다.



()년 ()월 ()일, 날씨()